

2020 청소년 웨비나 운영 계획

1. 운영 개요

가. 프로그램명: 2020 청소년 웨비나

나. 주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대응 방안(2차, 3차)

다. 일시: 2차 웨비나 2021. 01. 28.(목) 13:30-15:30

3차 웨비나 2021. 01. 30.(토) 13:30-15:30

라. 참여 대상: 1, 2학년 신청 학생 40명

마. 운영 방법: 온라인 화상 회의(Zoom)를 통한 발표와 토론

| 순서 | 내용 | 담당자 | 시간 |
|------|---------------------------|----------|----|
| 개회 | 웨비나 개회 및 유의사항 안내 | 이귀영 | 3 |
| 발표 | 코로나19로 인한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정아영 | 20 |
| 토론 | 지정 토론 | 심서영 | |
| 발표 |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현상 대응 방안 | 송민교 | 20 |
| 토론 | 지정 토론 | 정세현 | |
| 발표 | 코로나19로 끝없이 변해가는 서비스업 | 박정환 | 20 |
| 토론 | 지정 토론 | 백보민 | |
| 발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정치의 신구도 | 최윤영 | 20 |
| 토론 | 지정 토론 | 김재성, 강현우 | |
| 종합토론 | 청중 질의 응답 | 청중 | 20 |
| 폐회 | 폐회 및 유의사항 안내 | 이귀영 | 3 |

코로나19로 인한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정아영

2021년은 코로나19의 충격 이후 심오하고 급격한 디지털 변화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봉쇄와 다른 제약들이 오래된 관습을 깨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냈지만,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근본적인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은 올해가 되어서일 겁니다. 많은 이들이 '정상'으로의 복귀를 갈망하는 반면, 물리적 환경과 가상이 새로운 방식으로 공존하는 세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조짐은 언론계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저널리즘, 미디어, 기술 동향 및 전망 2021' 보고서는 3가지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널리즘 관행에서 가장 명백한 변화는 Zoom 및 Slack과 같은 온라인 협업 도구를 사용하여 원격 작업을 채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뉴스룸을 통해 침실, 거실 및 주방에서 신문, 웹 사이트, 라디오 및 TV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스페인 엘 디아리오의 부편집장 인 마리아 라미레스(María Ramirez)는 "3월에 뉴스룸이 완전히 멀어졌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해 왔다"며 '우리는 구식 뉴스룸을 가지고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을 만큼 이제는 세계의 많은 언론사들이 이러한 뉴스룸 형태에 적응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뉴스룸 리더들이 장시간 생산의 복잡성이 직원에게 가하는 압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 역시 이러한 뉴스룸의 형태가 갖고 있는 업무 피로도 측면에서의 단점을 실감했습니다. 더불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 뉴스룸 리더 10명 중 8명(77%)이 원격 근무로 인해 직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으며, 많은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과 그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도가 작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46%에서 53%로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당시 대중이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배치하는 가치를 입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코로나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언론의 사실 기반 보도는 대부분의 청중에게 유일한 소통창구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위기의 초기에, 언론은 과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한 디지털 형식에 있어 혁신을 보여 주었습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설문 조사에서 68%의 미디어 리더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소셜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어

저널리즘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에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사의 디지털 유료 콘텐츠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뉴스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별 결제 증가는 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뉴욕 타임즈만 해도 2020년 100만 명 이상의 순 디지털 가입자를 추가했으며, 품질, 독창적, 독립적인 저널리즘에 대한 전례 없는 수요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작년에 시작된 페이스북의 뉴스 탭은 1월에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인도, 브라질에 2021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구글은 구글 뉴스 및 기타 서비스에 게재될 Google 뉴스 쇼케이스라는 새로운 스토리 패널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전 세계 뉴스 독자들에게 라이선스 수수료로 약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 구글은 사용자가 게시자의 사이트에서 페이지로 된 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무료 액세스 비용을 지불할 것을 제안하여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디어와 언론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빠르게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춰 변화하고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들이 마냥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 언론사들은 디지털로 콘텐츠의 대부분을 전환해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뉴스룸을 진행해 어느 때보다 더 사람들의 큰 신뢰를 받고 있는 반면, 소규모의 지역언론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언론사들이 구독과 전자상거래로 수입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언론사의 경우 디지털 구독의 증가는 인쇄 및 디지털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인쇄 발행 부수의 현저한 감소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언론사들이 앞으로 더 많은 통합, 비용 절감, 폐업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만큼 많은 언론사가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언론사의 다양성 감소의 계기로 까지 이어져, 독점 언론의 불순한 의도에 그대로 따라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자들이 보다 다양한 종류의 언론사를 통해 이슈를 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각의 확장과 언론사의 획일화를 막기 위해 대안언론을 통해 유튜브로 이슈를 접하고, 인터넷 기사로 다시 한 번 이슈에 대한 내용을 심화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방법은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면 만남이 힘든 현재의 시점에서 ‘온라인 공론장’이 활성화 되어 줌 등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 혹은 온라인 채팅으로 이슈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높아진 언론 신뢰도를 바탕으로 언론사와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이 결합해 온라인에서의 소통의 장을 개설한다면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몇몇 언론사의 거대한 성장으로 인한 독점을 막으려면 지역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후원도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잘못된 언론 시스템의 시작이 아닌 정보를 보다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 출발의 계기가 되려면 코로나19로 변화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한 토론문

심서영

코로나19로 인해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한 현재 상황을 저널리즘에 관하여 분석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켰다는 생각과 언론사의 콘텐츠가 유료로 전환됨이 가속화된다는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디지털의 변화는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의 급격한 변화로 ‘가짜뉴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극복하길 기대하며, 코로나19와 봉쇄로 인하여 나타난 변화를 저널리즘의 배경에서 정리해 준 발표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론사의 디지털 가속화에 대해 발표해준 발표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 시각의 확장과 언론사의 획일화를 막기 위해 대안 언론을 유튜브와 인터넷 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예시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튜브와 인터넷 기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시각의 확장과 언론사의 획일화를 막을 다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저널리즘 관행에서 온라인 협업 도구를 사용하여 원격 작업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협업 도구만으로 원격 업무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발표자 역시 뉴스룸의 형태가 갖고 있는 업무 피로도 측면에서 단점을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이외에 발표자가 경험했거나 조사한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현상 대응 방안

송민교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빈부격차를 막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상대로 지원 했다. 그 결과로 공적이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상위20%는 40.3% 증가하였고, 하위20%는 15.8% 증가해 배 넘게 증가 폭이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왔다. 이 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위20%는 평균 연령이 62세인데, 재난지원금 대상 중에서 지원 규모가 컸던 특고,프리랜 , 초중등생 자녀 양육 지원금 , 소상공인 등 지원 규모가 컸던 대상자들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전소득 (정부지원금 포함)은 17.1%가 증가 하였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1.1%씩 감소 하였다. 그 중에서 근로소득(노동력을 제공한 대가)은 근로소득 상위 20%와 하위20% 로 나눠서 보자면 상위20%는 0.6% 감소 하였고, 하위20%는 10.7%가 감소하였다. 상위 20%와 하위20%가 이만큼이나 차이나는 이유는 하위20% 대부분은 임시 일용직인데 이를 중점으로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출처: 고용노동부) . 현재 가게 지출 통계도 상위20%는 0.9%가 감소 했지만 하위20%는 3.6%나 무려 4배 차이로 감소했다.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난지원금 정책은 반대로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 코로나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더 가혹하게 피해가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코로나로 인해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상황이 이어진다면 첫 번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영업이익이 급증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항공우주 3.3% 증가 , 삼성생명 ,메리츠 증권 등 5.9% 증가 하였다. 만약 이처럼 코로나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대기업들에서 일하는 상위20%의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하위20%와 빈부격차는 더 심화 될 것이다.

두 번째, 코로나 이후에 상위20% ,하위20% 뿐만 아니라 중산층들도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중산층 대부분의 일자리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게 문을 닫게 되고 , 중소기업도 지점마다 문을 닫게 되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 없어져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중산층의 근로소득도 낮아졌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에서 반절을 차지해 국내 소비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중산층이 줄어든다면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고 국내 소비 경제는 더욱 더 침체 되면서 상위20%와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세 번째, 중산계층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계층은 소득상위20%보다 소득하위20%로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면서 국가에게 정책을 바꾸자는 많은 청원이 올라오고 있고, 현 문제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처로 인해 지지율이 높아졌지만, 경제정책으로 인해 다시 떨어졌다. 이처럼 경제는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계속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 대응방안을 찾지 못 하고 이대로 간다면 중산층이나 하위20%의 국민들의 반감을 더 커질 것이다.

위와 같은 양극화 상황(빈부격차)를 막기 위한 방안은 첫 번째, 재난지원금 지원 주요 대상 순차적으로 바꾸기이다. 상위20%와 하위 20%의 공적소득이 차이가 많이 났던 이유는 하위20%가 재난지원금에서 지원 규모가 컸던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1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대상자를 소상공인이나, 하위20%에 속해 있는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더 했으면 2차에서는 중소기업, 실업자 등으로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사용 한다면 공적이전 소득 통계의 차이의 폭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생필품 가격 할인 해주기입니다.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가게 지출 통계가 상위20%와 하위20%는 무려 4배가 차이난다. 하위20%는 현재 생필품만 구매하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국가에서 코로나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을 30% 정도 할인해서 판매를 하면 하위20%의 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가격할인 기간에 사재기를 하지 못 하도록 예전에 낱까 마다 마스크를 살 수 있던 것처럼 생필품도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가격만 더 저렴하게 해주는 것이다.

세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봤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이득을 본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스크, 손소독제를 만드는 업체나 의료관련 업체 들은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익이 늘었을 것이다. 최대한 국가의 개입을 늘려 코로나로 인해 이익을 본 회사나 대기업 등은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불공평한 방법이지만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좋은 방법은 소득 상위계층들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국가는 세금을 더 걷고 세금을 더 내거나 기부를 한 회사, 대기업에게 국가를 위급한 상황에서 도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상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현상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현상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문

정세현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아래, 자산 빈부격차라는 계층 간 양상을 지닌 국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 침체라는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동일한 결과를 피하긴 어려웠습니다. 송민교 발표자님은 빈부격차의 심화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정부의 선별적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는 빈부격차를 넘어선 한국 사회의 계층 간 양극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한다고 역설하며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재난 지원금 지원 주요 대상 순차적 교체, 마스크 5부제 방식을 차용한 생필품 가격 할인, 소득 상위 계층의 고액 세금 징수를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경청하며 코로나19로 국내의 빈부 격차 문제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소득 취약 계층은 재정적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발표자님의 발언 중, 제가 의문을 가졌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발표자님이 제시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의견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보편적 지급 1회, 선별적 지급 2회로, 총 3차의 재난 지원금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발표자님이 말씀하신 재난 지원금은 선별적 재난 지원금이라 간주하고, 가장 최근에 지급된 3차 재난 지원금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저소득 근로자 57만명은 발표자님이 언급한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하위 20%계층이 아닌가요? 또한 이들이 상대적인 비율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 받았던 까닭은 중산층인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의 경우가 더 심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발표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산층은 우리 사회 계급의 대부분을 차지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균형과 국내 총생산 유지에 기여하는 계층이기 때문이죠. 따라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에는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특별한 작용이 없다고 봅니다.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1.

재난지원금 지원 주요 대상 순차적으로 바꾸기는 선별적 재난 지원금을 말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비롯된 경기 침체의 피해자는 비단 소상공인, 저소득층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수차례 지급하고 있으며, 굳이 재난 지원금 주요 대상을 이들 범위 안에서 교대하는 것은 현 체제와 별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차라리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신자유주의 원칙에 입거하여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방안이지 않을까요?

2.

마스크 5부제 방식을 차용한 생필품 가격 할인 해주기를 제안하셨는데, 현재 저소득층은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을 뿐더러, 지난해 마스크 5부제 정책으로 분배되었던 마스크와 달리 생필품은 순간적 희소성을 지닌 재화가 아니므로, 언제나 유동적이지 않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 생필품 가격 할인해주기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지 않을까요?

3.

발표자님의 말대로, 현재 언택트 사업과 의료 관련 기관 등의 순이익은 코로나19의 특수성 덕분에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국가의 개입을 늘려 이들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심화된 빈부 격차의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되지 못합니다. 일단 20세기 초, 케인즈는 정부가 경기 조절 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수정 자본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곧 지나친 정부의 개입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시장 경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부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그저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미 소득에 따라 납세 부담 비율이 증가하는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여 소득 상위계층의 실효세율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위 1%가 전체 세금의 절반을 내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기부 등 행위는 인간 양심에 직결되는 것이지 이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끝없이 변해가는 서비스업

박정환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교육, 의학 등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되는 변화와 피해가 되는 변화가 사회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그 중 변화가 크게 일어난 교육, 관광, 쇼핑 분야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수업, 두 번째로 거리두기 좌석제, 마지막으로 교내에서 주최하는 활동, 강의, 특강의 취소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 19가 유행한 후 도입된 교육 방식입니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직접 학교에 등교하여 선생님과 얼굴을 마주 보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유행한 후에는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구글이나 ebs를 사용하여 선생님이 내주시는 과제만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친구들마저 나태해져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과제를 잘 수행하지 않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육 분야의 변화된 모습 중 두 번째는 거리두기 좌석제입니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당연시하게 여겼던 짝궁과 같이 자리에 앉는 방식의 좌석제가 없어지고 '안전'을 위해서 일정한 간격을 맞추어 좌석을 띄워서 앉아야 하는 거리두기 좌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급식실 좌석입니다. 급식실 역시 코로나 19 유행 전에는 서로 마주 보고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 19가 유행하고 나서 급식실에서도 거리두기 좌석제를 실천하고 서로 마주 보고 밥을 먹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의 마지막 모습으로는 교내에서 주최하는 활동, 강의, 특강 등 교과 시간 외의 활동들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모든 학생이 시청각실에 모여서 교과 시간 외의 활동들을 하는데 코로나 19 유행 후 부터는 집단 모임 금지와 외부인 출입 자제 등 역시 '안전'을 위해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코로나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난 분야 중 하나인 관광분야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관광분야 역시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로 해외여행의 급격한 감소, 두 번째로 국내 항공사, 여행사의 피해, 마지막으로 국내 근거리 여행의 증가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변화는 해외여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19 이전에 많은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유행한 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타 지역에 가는 것에 대해 '안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어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급격히 줄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의 수는 코로나 19 이전에는 13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오고 갔지만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난 뒤에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6만 명으로 반절 이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변화는 국내 항공사, 여행사의 피해입니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평소대로 국내외 여행객들의 관광이 활발해서 국내 항공사와 여행사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유행한 뒤에는 말씀 드렸듯이 국내외 여행객들의 여행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와 여행사의 피해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19 유행 후 국내외 여행사들의 폐업 신고는 107건이고, 그 중 국내 여행사는 48개의 여행사가, 국외 여행사는 59개의 여행사가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변화와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 주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변화는 국내 근거리 여행의 증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국내 사람들이 대부분 여행을 해외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안전’이 최우선시 되면서 해외여행 가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조금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유행 이전에는 신혼여행지가 하와이와 발리 같은 해외에 있는 휴양지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유행하는 요즘 사람들은 신혼여행지로 제주도나 경기도 같은 신혼여행지로 적절한 국내 여행지를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난 분야 중 하나인 쇼핑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쇼핑 역시 발생한 변화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바일 쇼핑거래의 증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옷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모바일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매장에 직접 가서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유행한 이후로는 직접 매장에 가서 구매하는 경우는 줄고 모바일로 구매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가 생겨도 모바일 시장은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하는 기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달음식의 활성화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유행하기 이전에 외식을 하더라도 배달보다는 자신이 직접 먹고 싶은 음식을 파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 당하다 보니 사람들은 외부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배달음식 앱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을 통해 시켜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배달음식이 활성화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서비스업 분야의 변화에 발맞추어야 할 역량 3가지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동성입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요인에 의해 변화되는 세상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빨리 적응하느냐가 급격히 변화되는 코로나 시대에서 서비스업 종들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높아야 변화된 산업구조에 맞추어 서비스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역량으로는 통찰력입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천재지변 등으로 힘겨운 요즘, 통찰력도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해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현재 주어진 상황과 과거의 상황 등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조금이라도 예측하면 미래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대비책을 미리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계획성입니다. 계획성이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인 이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정해 놔야 앞으로의 미래에 위험성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에 대해 분석을 모두 끝마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계획에 대충 세우면 제가 분석한 미래에 대한 정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미래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의 마지막 순서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소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동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변화한 사회의 모습을 최대한 빨리 어떠한 부분에서 변화 했는지를 찾아내서 그에 따른 서비스 유형을 생산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종 서비스업들이 변화한 사회의 경제적 이슈나 경제 피해 정도, 변화한 사회의 트렌드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세운 계획이 변화한 사회에 대해 효과적이고 이익이 되는 계획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끝없이 변해가는 서비스업>에 대한 토론문

백보민

코로나 19로 인해 끝없이 변해가는 서비스업 발표문을 읽고 토론문을 작성하게 된 백보민이라고 합니다. 발표자는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 변해가는 서비스업을 크게 3분야(교육, 관광, 쇼핑)로 나누어 정리해주셨습니다.

1.교육 분야

교육 분야부터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19가 유행한 후 도입된 교육 방식, 거리두기 좌석제, 교과 시간 외 활동의 변화로 인한 우리의 실생활 속 제약을 명확히 파악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에 명시돼있는 코로나 19가 유행한 후 도입된 교육방식을 살펴보면 구글클래스룸이나 EBS를 사용하여 선생님이 내주시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친구들 마저 나태해 저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과제를 잘 수행하지 않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같은 일부 학생들은 교육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집’이라는 편한 분위기의 장소에서 학습을 할 수 있었기에 나태해져 학습에 열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온라인 클래스를 잘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아 공부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할 수도 있고, 시끄러운 학교 분위기 속에서 벗어나 집중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거리두기 좌석제에서 안전을 위해 띄어 앉는 것으로 급식실 좌석의 띄어 앉기 만을 예로 들었는데 주제가 서비스업인 만큼 공연, 행사, 스포츠 경기에서의 거리두기 좌석제도 조사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거리두기 좌석제를 조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남았습니다. 또 마지막 모습으로 교과 시간 외의 활동들이 모두 취소되었다고 하셨는데 경제 특강, 웨비나 활동 같은 일부 활동들은 제약을 받지 않았으므로 정정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관광분야

관광분야에서 세 가지 변화로 해외여행의 급격한 감소, 국내 항공사와 여행사의 피해, 근거리 여행의 증가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해외여행의 급격한 감소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코로나 19 이후 한국 방문 수 감소를 예로 들으셨는데 19만명->6만명으로 감소했다는 자료를 이용해 설명을 도운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항공사와 여행사의 피해 부분에서 국내외 여행객들의 급격한 감소로 폐업한 항공사들의 수를 통계를 이용하여 제시한 것 또한 이해하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국내 근거리 여행의 증가로 “제주도와 경기도 같은 신희여행지로 적절한 국내 여행지를 찾아 다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적절한 여행지라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는 코로나 확진자가 주기적으로 발생했고, 심지어 12월 19일 경에는 하루에 1095명이나 확진자가 나왔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졌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확진자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 경기도기에 적절한 여행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쇼핑

쇼핑 분야에서는 모바일 쇼핑 거래, 배달음식의 활성화를 다뤘는데, 모바일 쇼핑 거래 부분에서 매장 방문이 적어지는 대신 모바일로 구매하는 양상이 증가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셨습니다. 또 외부에서 음식 섭취가 어려워 지다 보니 배달 음식의 수요가 늘어나 활성화 된 것도 인상깊었습니다.

4.서비스업 분야의 변화에 발맞추어야 할 역량 세 가지

첫 번째로 유동성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 요인에서 대부분의 서비스업종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저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역량으로 통찰력을 제시해주셨는데 미래 상황을 꿰뚫진 못하더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조금이라도 예측하면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 역시 점점 발생 격차가 줄고 있는 인류의 전염병에 대비하는 서비스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계획성 부분에서 미래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5.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법

유동성- 유동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변화한 사회의 모습을 최대한 빨리 어떠한 부분에서 변화했는지를 찾아내서 그에 따른 서비스 유형을 생산해서 제공하는 방법

통찰력-서비스업들이 변화한 사회의 경제적 이슈나 경제 피해 정도, 변화한 사회의 트렌드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

계획성-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세운 계획이 변화한 사회에 대해 효과적이고 이익이 되는 계획인지 다시 한번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방법들의 예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씩 설명이 보충되어야 할 부분도 보이긴 했지만, 설명을 분야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해둔 덕분에 보기에 편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의 변화들이 코로나 19 발생 전후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차이점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정치의 친구도

최윤영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11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 시에서 최초로 발생하여서 2020년 1월 중국을 넘어서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각지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에 세상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갖추게 될 국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나 빠르게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벗어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 국제 사회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는 이 두 국가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 했을 때 미국과 같은 나라의 조치는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가이드 라인이 되었을 만큼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처음 바이러스를 발견했던 중국은 2019년 11월 말에 처음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으나 바이러스의 진행 상황을 은폐하여서 대략 50일이 지난 1월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우한시를 봉쇄하는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때 중국이 통제하지 못했던 50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중국에 대한 세계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신뢰받고 모범이 되어오던 미국조차 미숙한 방역으로 세계 코로나 확진자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방역에 실패하면서 다른 국가들 역시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세계가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라는 상황 아래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개발 도상국들은 속수무책으로 코로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우 효과적이고 뛰어난 방식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국제사회의 중견 국가들이 앞으로 새롭게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새로운 중심 국가로써 성장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변화할 국제 사회의 판도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해

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정보 통신 기술과 잘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시간에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상황과 그 이동 경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입국 금지를 내리지 않고서도 효과적으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2주를 필수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입국금지를 행했을 시 얻어질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막아냄과 동시에 효과적인 방역을 보이면서 전 세계로부터 K-방역에 대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개발 도상국들은 물론 다른 선진국들조차도 대한민국의 방역을 인정하고 실제 우리나라가 시행했던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국내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는 효과적으로 전염병을 통제해내는 국가들이 하나의 리더 그룹을 만들어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 리더 그룹에 들어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하는 노력이 미래에 뒤바뀔 국제 정세에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서기 위한 대응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정치의 신구도>에 대한 토론문

김재성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미국과 중국같은 강대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국제 정치의 구도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정에서 드러난 두 강대국의 미숙한 대처 그리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현재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미국과 중국같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가 이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 k-방역의 우수성에 대한 점 그리고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뛰어난 정보통신 기술과 잘 구축된 인프라라는 기반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글에서 동의하기 힘든 부분들이 꽤나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자께서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갖추게 될 국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나 빠르게 코로나의 위기로 부터 벗어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지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 바이러스에 신속하고 능률적인 대응을 선보인 국가들이 어느 정도는 이점을 지닐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저 단순한 전염병에서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것이 결코 그 국가의 국력과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수치가 될 수는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발표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는 효과적으로 전염병을 통제해내는 국가들이 하나의 리더 그룹을 만들어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효과적으로 전염병을 통제한 국가들이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과연 이러한 국가들이 한데 뭉쳐서 리더그룹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지금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MIKTA와 EAS(동아시아 정상 회의) 그리고 FEALAC(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과 같은 국제 협력체들도 실질적인 위상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방역에 성공한 국가들이 협력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과연 이 그룹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정치의 신구도>에 대한 토론문

강현우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의 바뀌게 될 국제 정치의 구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리더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앞에서 말해주셨습니다. 중국이 19년도 11월에 발견된 바이러스의 진행 상황을 은폐하여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어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진 점과 코로나 이전까지 여러 위기를 극복하여 신뢰를 받아오던 미국의 코로나에 대한 미숙한 방역으로 확진자 1위 국가가 되어 신뢰가 떨어졌다는 점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또한, 코로나 위기를 얼마나 빠르게 극복하는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영향력 얻을 국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보 통신 기술과 잘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발생 상황과 이동 경로를 국민에게 알리고 있고, 외국인 입국 금지를 내리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방역을 보여 전 세계로부터 K-방역에 대한 찬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K-방역이 찬사를 받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에 100명 이하였던 일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하루 확진자 1000명을 넘었던 점과 코로나 3단계로 올려야 하는 기준치를 넘겼는데 올리지 안일한 대처를 봤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25일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 간에 거리 두기가 안 지켜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 단계의 기준을 왜 설정했고 아직도 K-방역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뛰어난 방식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국가들이 앞으로 새롭게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새로운 중심 국가로서 성장할 것이라는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만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공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어 중심 국가로서 성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성공해 특허를 얻은 소수 국가가 중심 국가로 성장하는지 자세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